■ ‘바다이야기’ 등 전국 뒤흔든 사행성 게임

‘도박 대한민국’ 단속태풍 분다

최고 2만5천배 당첨확률 조작…등급 허가심사 ‘수박 겉핥기식’

폭력조직 연계여부 수사 속 성인 오락실 무더기 철퇴 불가피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대표적 사행성 게임 제조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되면서 사행성 게임 오락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사행성 조장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분을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향후 영상물등급심사위(이하 영등위) 심사과정이나 관련 회사들의 영업 과정에 또 다른 불법 요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독성 이유 있었다’ = 검찰 수사 결과 ‘바다이야기’가 1년6개월 만에 전국 성인오락시장을 장악한 것은 고객들의 ‘한탕주의’심리를 교묘히 자극한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는 1회 게임 때 100원을 넣고 얻을 수 있는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액을 2만원 이하(200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고시를 무시하고 게임 한 번으로 최고 2만5천배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넣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 100원을 넣고 최고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불법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한 것이다. 또 2만원 이상의 점수가 터졌을 때 5천원짜리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남는 점수는 삭제시켜야 하는데도, 남는 점수를 누적시켜 상금을 계속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영등위 심사도 ‘구멍’= 이처럼 사행성이 강한 게임기가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데에는 ‘바다 이야기’ 심의 과정에 나타난 ‘구멍’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

영등위는 당초 ‘바다이야기’를 심사할 때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이야기’ 측이 제출한 게임물 설명서와 게임기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능을 담은 프로그램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영등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등위도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등급 허가를 내주는 등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됐다.

또 영등위 관계자가 모 게임사의 등급 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영등위 내에 ‘청탁’ 문화가 일부나마 존재했다는 사실로 미뤄 향후 영등위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

◇대대적 단속 ‘불가피’=검찰은 이들 업체 수사과정에서 폭력 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수사했으나 폭력조직이 게임기 제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게임장 운영 등에는 조폭이 상당수 개입한 정황을 밝혀내고 계속 수사키로 했다. 또한, 이 게임 제조사들의 사행성 조장 등 불법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만큼 현재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영업중인 성인 오락실에 대한 검·경의 단속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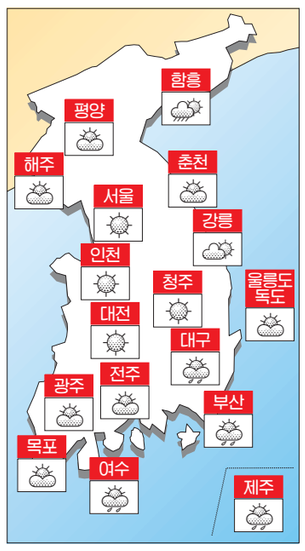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막바지 무더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8월 21일 (음 7월 2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많음	22~30℃
목 포	구름많음	24~30℃
여 수	구름많고 소나기	23~29℃
완 도	구름많고 소나기	23~29℃
구 례	구름많음	21~31℃
해 남	구름많고 소나기	22~29℃
장 흥	구름많고 소나기	22~29℃
고 흥	구름많고 소나기	22~30℃
순 천	구름많음	21~30℃
영 광	구름많음	23~31℃
진 도	구름많고 소나기	22~33℃
전 주	구름많음	23~31℃
남 원	구름많고 소나기	21~31℃
정 읍	구름많음	22~30℃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0:51 12:42 썰물 06:22 18:10
여 수 밀물 07:45 20:19 썰물 01:58 13:44

▲해뜸 05:56 ▲해짐 19:15 ▲달뜸 03:02 ▲달짐 18: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 씨						
최저/최고	23/29	24/32	23/32	23/31	23/31	23/31

‘고참’ 법원장 3명 잇단 사표

오늘 법원장급 12명 후속인사 할 듯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겸임해 왔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법원장 3명은 최근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흥복 원장은 사시 13회로 전국 법원장급 고위법관 중 최고 선임이며 이우근·이종찬 원장은 각각 14, 15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관 인사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 이후 생긴 법원장급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21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헌재재판관 내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천·수원·창원지법원장, 공석 상태인 광주고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서부지법장, 다른 법원 원장이 겸임해 왔던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특허법원장 등 1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신된 면모의 법원으로 재출범하고 법원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보 인사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 미기록 겨울철새 2종 확인

〈꼬마갈매기〉

〈큰부리바다오리〉

지난 1월21일 겨울철 조류 조사에서 국내 미기록 조류인 큰부리바다오리와 꼬마갈매기 등 2종이 우리나라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127개 내륙 및 해안 습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큰부리바다오리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해상에서 3마리가 관찰됐고 꼬마갈매기는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에서 성조 1마리가 포착됐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무료환승 거부 유보

오늘 쟁의 찬반투표

무료 환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예정이었던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의장 장현곤·이하 노조)이 입장을 유보해, 20일 광주의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광주 시내버스 사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당초 20일부터 무료 환승을 거부, 사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9일 내부 이견 조율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무료환승 거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적지 않는데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21일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노조는 ▲임금 8% 인상 ▲월 22일 근무 ▲체납임금 청산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금 3% 인상 ▲월 24일 근무 ▲퇴직금 중간 정산 선결 등을 내걸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전남 25일 의료파업 ‘초긴장’

지난 2004년 장기 파업을 겪었던 병원 노사가 올해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전국본부가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대·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앞서 24일 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가질 계획이며, 광주적십자혈액원 보건의료노조도 22~23일 출·퇴근 시간을 통해 준법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본부와 함께 ▲임금 9.3% 인상 ▲인력충원을 통한 주 5일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2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1.8~2%의 임금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인력충원은 경영 여건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간부들만이 파업에 참가하는 ‘경고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18일 실시한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만2천274명(113개 사업장) 중 2만6천630명(투표율 82.5%)이 참여해 73.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광주·전남본부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광주보훈·목포카톨릭·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14개 병원·의료원 3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인감증명 대출 부정사용 금융기관이 100% 책임”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금융 대출에 부정하게 사용됐더라도, 동사무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20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금융대출시에는 인감증명 외에 주민등록증과 등기관계서류 등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H상호저축은행은 대출자의 주민등록증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연합뉴스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1일)	
최병근	232-8583
●법무사회 법률상담(21일)	
김윤종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